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의 국어과 전문성 탐색*

주세형**

〈차례〉

- I. 문제 제기
- II. 학습자의 과제 수행 양상
- III. 논의 및 시사점
- IV. 마무리 : 국어과적 전문성을 지닌 성취 기준으로

I. 문제 제기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줄 안다’는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기술된 성취 기준(또는 교육 내용)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판적 문식성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910011.01).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본 연구가 ‘설계 및 진행, 기술’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다.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세부 정보에 따라, 발달 양상을 고려하여 세세히 기술하지 않은 것,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술하지 않은 것, III장에서 결제목으로 선정한 내용들이 ‘직위적인 기준’에 의거한 것임을 지적하셨다. 연구자는 심사자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본 연구에서 취한 연구 방법이 기존 연구와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취한 방법은 학습자를 관찰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에서 ‘향후 교육 내용으로 기획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학습자의 ‘발달’ 양상을 볼 필요가 없었으며(이에 대해서는 II장의 각주 참고), III장의 결제목 역시 ‘연구자가 관찰한 학습자 집단이 보여준 양상을 분류한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러한 방법이 생소하게 생각되셨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법과 다른 연구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국어교육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 서강대학교(forkid@sogang.ac.kr)

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는 비판적 문식성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및 프로그램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성취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사실’, ‘의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구별 기준, 활동을 위한 구체적 지도 전략, 활동의 결과가 비판적 문식성 향상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어과 교사가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수업을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어교육학은 문식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타 교과에서 다루는 활동과 그 교육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성취 기준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사실–의견 구별하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회 교과 등에서도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수업에서도 ‘사실–의견 구별하기’는 중핵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회과 수업에서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을 수행했던 학습자가, 국어과 수업에서 그다지 차별화되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학습자는 국어과 수업에서의 활동을 더 무의미하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실, 의견’이란 ‘구체적인 사건 자체’를 다루는 데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이은(2010)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의 내용 요소를 ‘국어과적 전문성’을 지향하며 구체화한, 현 시점에서 유일무이한 연구로 평가된다. 그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사실’이라는 용어를 ‘참’과 혼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혼용을 막기 위해 ‘사실’과 ‘사실 문장’의 개념을 분할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재개념화한 ‘사실 문장’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사실 문장의 구성 요소를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권이은(2010)을 주목한 이유는 그가 ‘참’을 아는 것보다 ‘사실 문장’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는 점에 있다. 즉 그는 국어과적 전

문성을 지닌 교육 내용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요인'이 중핵이 되어야 함을 공감하고,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적 요인을 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문장' 차원의 지도 이내에 있어 '초등 단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비판적 문식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어야 하는 중등 단계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그는 언표내적 행위를 따로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다(권이은, 2010 : 12~13)며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텍스트 전체의 목적과 기능,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고려하여' 비판적 읽기 활동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국어과 교사는 국어과 전문성을 지닌 수업을 해야 하며, '국어과 전문성'은 '언어 · 텍스트에 기반한 활동과 전략'이 핵심이 됨¹⁾을 의미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1) 본고에서는 '국어과 전문성'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대신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 / 주세형 외 역, 2007)의 기본 취지를 요약해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국어과 전문성'이란, 교수 학습 활동에서 '자연주의 모델과 정 중심 모델'이 중심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연주의 모델에서는 모든 학습자는 '몰입' 힘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획득했으니 쓰기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몰입'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자연주의 모델 지지자들은 자칫 언어 사용의 '맥락'을 간과하기 쉽기에 문제가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정 중심 이론이 교사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다만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고 촉진할 방안만 모색하면 되며, 학생 스스로 언어를 '발견'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소집단 학습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텍스트 형태의 다양한 용법이 자연스럽게 학습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혐오한다. 교사는 스스로 방관자가 되기 쉽고,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 해야 하는 '언어'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인 안내도 받지 못한다. 냅과 왓킨스는 이러한 비판을 하면서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신 그들은 장르 중심 이론을 제안한다. 텍스트 유형을 결정짓는 '언어적 특질'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언어적 특질이 바로 통사적 · 의미적 · 수사적 판단까지 포함한 문법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전 시대처럼 문법을 규칙과 개념으로 구성된 독립적 집합으로 간주하면 문법은 여전히 정확성과 적절성을 위한 규칙의 집합에만 머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장르 안에 존재하는 표현의 힘으로서 간주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요컨대 본고에서의 '국어과 전문성'이란 "언어적 지식을 표현 · 이해 활동의 핵심이 되는 힘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의견 구별하기’가 국어과적 전문성을 지닌 성취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내용·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학습자의 과제 수행 양상’을 조사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의견’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접어둔다. ‘사실－의견’은 그 개념의 폭이 무척 넓기에, 필요에 따라, 더 나아가 교과의 목표에 따라 그 개념역이 달리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²⁾

또한 교육 내용은 공급자 입장의 ‘논리적 순서’³⁾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교육적 순서(양미경, 2008 : 199)⁵⁾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려 한다. 즉 교과교육학의 내용 연구는 그 출발점이 ‘학습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실－의견’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 언어학적 논의부터 천착하기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국어교육학에서 필요한 개념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리적 순서에 따른 교육 내용도 마련하여, 쌍방향에 의거하여 마련된 내용을 모두 통합, 균형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주 활동 내용으로 하

2)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그래도 개념 규정을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술하지 않았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3) 물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를 위한 ‘논리적 순서’도, 학계에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

4)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지적하신 ‘연역적인 기획에 의거한 교육 내용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연구자는, ‘논리적 순서에 의거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에 앞서서 ‘교육적 순서에 의거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양미경(2008 : 198~199)에서는 교육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그 동안 각 교과의 교수 학습이 논리적 순서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온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리적 순서란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 혹은 원리를 앞세우는식의 절차를 말하며, 이에 반해 교육적 순서는 학습자의 질문이 발전되어가는 계열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방식을 말한다. 논리적 순서는 최종 산물로서의 지식 체계가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 꽉 짜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결국 학습자 스스로 지니고 있는 ‘나름의 지식 체계, 인지 구조나 지향성’ 등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는 수업을 계획하고, Ⅲ장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학습 활동 양상을 분석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Ⅳ장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가 국어과 전문성을 지니는 성취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탐색한다.

II. 학습자의 과제 수행 양상

본 Ⅱ장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기’ 과제를 설계하여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실행하고, 학습자의 과제 수행 양상을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1. 과제의 설계

1) 과제의 구성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는 전통적으로 읽기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서도 ‘읽기’ 활동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이미 경험했을 개별 문장 차원에서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서울 강북에 위치한 H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교사는 먼저, 개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학습자의 반응 결과가 전혀 수집되지 않아 이후 3개 반에서는 조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부산시에 위치한 K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학습자 집단이 각 학년의 능력을 대표할 필요

는 없다고 본다.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행하는 활동이나 사고’의 편폭을 최대한 다양하게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학교급	학생 활동 유형	활동(공통)
중학교	1. 35명(개별 활동, 50분간) 2. 31명 * 3개 반 (4~5명씩 조별 활동, 20분간)	1. 주어진 기사문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과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별하여 표시하시오.
고등학교	29명 * 2개 반 (개별 활동, 20분간)	2. 위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첫 번째 활동은 초등학교급에서 이미 학습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는 학습자 집단이 중등학교임에도 초등학교 수준의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의견 구별하기’ 능력에 대한 진단적 성격을 띠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중등학교 학습자들이 과연 본격적으로 비판적 문식성을 신장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활동이 본 연구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두 번째 활동의 결과를 수집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본격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주어진 신문 기사를 읽어나가면서 학습자는, 텍스트 차원에서 ‘사실 문장—의견 문장’을 명확히 구별하기란 본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아내어야 한다. 문장 차원에서는 ‘사실 문장, 의견 문장’이 어느 정도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텍스트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맥락 변인들이 개입하며 그 구별 점이 모호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사실—의견 문장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사실—의견’을 여전히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여러 단서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학습자는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비판적 읽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두 번째 활동을 수행하면서 ‘여러 단서들’을 밝히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연구자는 학습자가 어떠한 교육 내용을 배워야 할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 텍스트 선정 기준

활동을 위해 선정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택된 것이다.

첫째, 여러 텍스트 유형 중에서 기사문을 선택했다. 김봉순(1999: 58)에서는 신문 기사문은 사실 정보의 객관적 전달을 주요 기능으로 갖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용자가 주체적인 판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포장한 시각과 관점을 벗기고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신문 기사문에 대한 1차적 읽기에서는 ‘사실 정보의 객관적 전달’을 중심으로 읽어내고, 비판적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해 2차적 읽기를 시도할 경우는 필자의 주관성을 읽어내고자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이 다양하게 학습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르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기사문 중에서도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다양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텍스트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피실험자 대부분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사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국어과 전문성이란 ‘언어·텍스트에 기반한’ 것이어야 함이 본 연구의 전제이므로, ‘학습자의 어려움’이란 ‘언어적 장치에 기인한 것’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텍스트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언어적 장치가 ‘명백히 사실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를 선택하였다는 의미이다.⁶⁾ 그로 인하여 실제로 기사문에서 드러난 글쓴이(기자)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데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입장은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자들이 기사문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숨겨서’ 간접적으로 노정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파악해 보려 하였다.

6)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 반응 중에서 예를 들자면, ‘사실—의견’의 본질적 문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②의 경우를 유도한 것이다.

셋째,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사를 선택하였다. 신문 기사 중에는 사실 정보의 전달보다는 분석이나 해석 자체에 비중을 더 두는 기사도 있는데, 기자의 해석이 주목적인 기사의 경우는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비판적 읽기 수업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기 때문이다.

넷째, 학습자가 미리 접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처음 대하는 텍스트여야만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사실 – 의견 구별의 다양한 학습 양상’을 제대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대한 선행지식이 개입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학습자가 최근 접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료로 2005년도 기사문을 선택하였다.

[활동 자료 기사문]

지율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촉발된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확산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생명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율스님, “터널 환경파괴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사회적 논란 촉발할 것”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민주노동당 등은 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총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지율스님 1백일 단식을 계기로 촉발된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범불교 연석회의, 종교인 참회기도 추진위원회, 녹색연합, 천성산 대책위원회, 풀꽃세상, 민주노동당 등이 제안해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발족하게 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지율스님은 “초록의 공명은 고귀한 생명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나 많아질 때, 많은 사람이 함께 기대와 희망을 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연석회의를 계기로) 천성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조사를 다시 해도 터널을 뚫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각의 회의적인 목소리를 반박했다.

그는 “천성산의 3분의 1을 관통하는 터널은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3분의 1의 칼자국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칼자국에서 피가 나오듯이 천성산 터널이 지하수맥과 같은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터널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해 터널을 뚫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야 말로 진실에 가깝다”며 “3개월에 걸친 조사를 계기로 그런 기준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망 속 ‘희망’을 말한 지율, 빙산으로 돌진하는 타이타닉 멈출 수 있는 힘의 원천”

연설회의를 제안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도 시민·사회단체가 연설회의를 발족하게 된 의미를 설명했다.

김종철 발행인은 “경제 성장’이라는 신을 한국 사회처럼 맹목적으로 모시는 사회는 없다”며 “도처에서 보이는 환경 재앙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나 성찰이 없는 한국 사회가 빙산으로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와 다름없다는 생각에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지율스님은 절대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며 “단식이 60~70일을 넘어서면서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도 스님은 ‘천성산은 절대 죽지 않는다’며 낙관하고, 희망적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율스님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모성애적 마음을 가진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신호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 지율스님이라는 원천을 계기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연설회의를 제안하고 발족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일부 훼손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현실주의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빙산으로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꿀 때야말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토회관 떠난 지율스님, 다시 천성산으로

이날 발족한 연설회의는 앞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꾸리고 침여단체를 중심으로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고, 천성산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을 계기로 우리 국토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천성산 생태기행, ▲천성산 식목 행사 진행, ▲‘1백만마리 도롱뇽 조형물’ 추진,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성, 경제성, 환경영향 평가 및 대안노선과 관련된 대시민 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정토회관을 나온 지율스님은 청와대 인근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연설회의 발족이 끝난 후 환경단체 활동가와 간담회 등 계획된 일정을 끝으로 10일께 천성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12일경 천성산을 직접 방문해 공동조사를 위한 합의문 작성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 중학교 학습자의 학습 양상

중학교 학습자들은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별지에 자신의 반응을 기술해낸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의 반응은 ‘장르적 특성, 필자의 권위, 사실–의견의 본질적 문제, 내용 특징’ 등의 기준으로 분류,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장르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문이니 모두 사실 같다. –신문 기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기자의 의견이 없는 것 같다. –신문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 –수필인 경우에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지만, 신문은 사실을 쓰므로 자신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는다. –객관적인 글이므로 기자의 생각이 없다.
필자의 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자가 쓴 것이니 사실 같다.
사실–의견의 본질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은 확실한 것 같지 않아서 구별을 잘 못하겠다. –의견은 없다. –다 사실인 것 같다. –너무 애매하다.
내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같은 것⁷⁾은 지율스님의 말과 자신의 의견을 종합해 쓴 것 같다. 나머지는 계획 등을 말하는 것이니 사실이라 생각된다. –잘 못 알아듣겠고 어렵다.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숫자가 들어간 부분은 사실인 것 같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스님이 말한 다음 자기 의견을 내서 구별하기 힘든 것 같다.

3. 고등학교 학습자의 학습 양상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었기에 자신의 반응을 대부분 상세하게 적어내었고, 그 결과 학습 양상을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언어적 근거’를 인식한

7) 신문 표제를 말하는 듯하다.

학생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 중학생보다 장르적 특성을 상세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었다. 고등학생의 반응은 '언어적 근거, 장르적 특성, 내용 특징, 관점, 필자의 권리' 등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중학생들과는 달리 고등학생들은 그 반응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어 각 반응들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논의 전개를 위한 분류 기준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언어적 근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모든 얘기를 사실처럼 한다. '했다', '말했다' 등으로 (보아) 기자의 의견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발표가 났다', '누가 말했다' 등은 사실이다.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말들은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정토회관 ~ 천성산'은 하나의 제목이기 때문에에 적는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다. ⑧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서술어 : 말문을 열었다. -고 소개했다. -고 설명했다. 바람을 밟았다. ⑨ '의견임'을 알 수 있는 부분 : '일각의 회의적인 목소리를 반박했다' 목소리를 높였더라'(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더욱더 확산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⑩ 기사를 작성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지율 스님이 한 말을 인용했으므로 사실인 것 같음. ⑪ 인용을 함으로써 기자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 스님이 말한 것도 그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님. ⑫ 기사 전체적으로 지율과 대립되는 입장의 의견은 인용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 인용문들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자는 환경 단체와 대립되는 입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게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율스님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조차 지율 스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⑬ 특히 두 번째 표제는 서술어를 생략하지 않았더라면 사실로 느껴졌을 것인데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의견이 되어 버린다. ⑭ 일단은 신문이라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함에 있어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쉬웠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기자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도 있어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데 다소 난감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그런지 의견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또 사실이라서 사실로 표기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애매모호하고 어려웠다. 또 기자의 그 사건에 대한 약간의 주관적 개입으로 더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장르적 특성	<p>⑦ 아무리 사실 전달에 본질을 둔 기사문이라도 기자의 가치관에 따른 가치 판단마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다.</p> <p>⑧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줄을 굿다가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기사문이다. 기사문에는 모두 사실을 전제 하로 쓴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어서 줄을 그었던 것 같다. 사실 줄을 그을 때 지울스 님이 말하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인지 알았다. 그런데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기자가 보고 들은 사실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왜 기자의 입장에서 보나 하면 이 글은 기자가 쓴 기사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처음에 기사문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려던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p> <p>⑨ 서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신문기사는 객관성에 치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자의 의견을 찾기란 쉬운 일 또한 아니었다.</p> <p>⑩ 대부분 신문기사라면 사실만 써야 한다고 배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보는 신문기사에 자기 개인의 의견을 써도 될까? 아마도 자신의 의견을 쓴다면 사실에 가려 의견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의견과 사실의 구별이 무척 힘들다.</p> <p>⑪ 많이 헷갈린다. 우선 사람들의 의견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이라 보았다. 신문기사에서 쓴 내용을 사실 보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찾았다</p> <p>⑫ 기사는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기사에도 기자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자의 의견이 어떤 측면에 있는가에 의해 기사 내용이 조금씩 보태되고 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지켜지지 않은 취재 대상의 앞으로의 계획이 보태어 있기 때문이다.</p> <p>⑬ 우선은 사실적 부분을 인식하고 전체적 사실적 부분에서 한 부분을 빌췌하여 기사를 낸 기자의 의도와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해 본다. 한 기사만을 읽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사(같은 사건)를 읽고 좀 더 다양성에서 객관적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p> <p>⑭ 기자가 정한 타이틀에 적합한 의견들만을 선택, 조합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된 말들은 발화된 의견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기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 의견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기자가 개입을 하므로 지울의 의견이 기사 내에서 마치 사실인 듯 작용하고 있다.</p>
	<p>내용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를 계획해 놓은 일이 사실인지 헷갈린다. 안 지켜질 수도 있어서.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계획이나 의지는 사실이다. -계획, 예정은 아직 확실히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다. -기사 전반적으로 지울 스님의 언행과 예정, 계획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 저는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담았습니다.

<p>‘사실- 의견’의 본질적 문제</p>	<p>⑦ 의견도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과 사실이 헷갈렸음. ⑧ 사실 같은 의견이 많아서 나누기 힘들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공감할만한 걸 사실로 쳤고 의견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의견으로 쳤다. 또 다른 식으로 지율스님이 내세우는 의견을 사실로 보았다. ⑨ 어떤 것은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사실과 같이 말해 놔서 좀 헷갈렸다. 사실과 의견 구별은 쉬울 거 같으면서도 직접 구별을 하다보면 아리송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으로는 ‘사실’과 ‘의견’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내가 어떤 글의 내용이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과 의견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다. ⑩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데 자신이 생각해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다. ⑪ 사실과 의견이 헷갈린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은데 자기 의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정말 헷갈린다. 사실도 의견 같고 의견이 너무 유창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 같다. 의견인데 그 말이 너무 일리 있고 확실하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한마디로 정말 헷갈린다. ⑫ ‘사실’이라는 것은 대체로 실제 실행되었거나 실행될 객관적이면서 겉으로도 그대로 보이는 외면적인 내용으로서, 그 의도를 파헤쳐 봐야만 알 수 있는 내면적이면서 주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의견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내 나름대로 생각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의견’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아마도 의견이 곧 사실로 바꾸어질 수도 있어 그런 것은 아닐까? 앞의 내용처럼,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낸 의견이 곧 실행될 예정인 사실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 의견이 사실 같고 그 사실이 의견 같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 ⑬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느냐, 그 기준 역시 분명하지는 않다. ⑭ 사실과 의견 모두 사실에 있었던 사람이 한 말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견을 구별해내기 어렵다. 의견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p>
<p>관점</p>	<p>⑮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넣지 않은 것 같다. 기자는 모두 사실만을 서술하였고, 지율 스님이나 그 외에 관계자들이 말한 것들은 의견이라고 보고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보았다. ⑯ ‘지율 스님의 100일 단식’이나 ‘00일에 연석회의 발족’은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천성산에 길을 뚫는 것은 우리의 몸에 칼자국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와 같은 것은 지율스님의 ‘의견’이지만 기자가 봤을 때는 지율스님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다. 그래서 기자가 봤을 때는 자신의 의견은 전혀 없고 보고 들은 사실만을 적었기 때문에 의견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할 때에 있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가장 힘들었다.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율스님의 말은 사실이 되어 버린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땐 지율 스님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되어 버린다.</p>

관점	<p>이렇게 되어 버리자 사실과 의견으로 밀줄을 그을 때 기자와 사회적 관점을 일시적으로 혼동하게 되어 뒤죽박죽 생각이 엉키게 된다. 거기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도 개입되게 되어 버렸다. 만약 관점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면 올바르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p> <p>Ⓐ 기자는 지율 스님 편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전반적으로 의견이다. 지율 스님의 의견에 부합하는 단편적인 사실을 찾아 나열해 놓고 중간에 반박과 치적이라는 나름의 해석을 달아 놓았다. 이는 기자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이다.</p> <p>Ⓑ 사실과 의견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관점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내 관점에서 어려움을 느꼈다.</p> <p>Ⓒ 우리가 이때동안 살면서, 의견? 사실?이라고 하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역시 선생님께서 나눠 주실 때 '이쯤이야 뭐'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사회적으로 볼 때, 나를 중심으로 볼 때,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과 사실을 찾아보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하여금 찾을 때는 그럭저럭 쉬웠지만, 사회를 관점으로 찾을 때는 이게 맞나? 아닌가? 참 헷갈린다. 쉽게 볼 일이 아니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구요.</p> <p>Ⓓ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중 누구에 대해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야 할지를 몰라서 어려웠다.</p>
필자의 권위	<p>-사실과 의견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기사를 읽을 때 독자들이 사실인 부분과 기자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지를 해석이 곤란할 때가 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랬다.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들이 기사를 통해 어떠한 사실들을 수렴하고자 할 때 첫째, 감정이 뒤섞이어 문장 기사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기자의 권위 때문에일까? 사람들은 간혹 기사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사의 내용이 독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일 경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p> <p>셋째, 기사는 독자에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성에 호소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감성에 호소하고 독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p>
기타	<p>-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긴 했으나 헷갈린다.</p>

III. 논의 및 시사점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정리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는 '언어적 근

거’, ‘장르적 특성’ 이외에는 그다지 논의할 내용 양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나머지 사항은 고등학교 학습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1. 언어적 근거

중학교 집단에서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적 장치 자체를 대상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들의 반응에서는 ‘언어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경우, 피조사자 집단의 크기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⑦, ⑧에서는 ‘용언의 유형’이 ‘사실—의견 구별’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의 언어 인식을 예각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처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적 처치는 철저히 ‘문법적 장치’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보고 동사(report verb)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는 것인지, 형태소 ‘-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⑨처럼 큰 덩어리를 지적한 학생들에게는 특히, 그 중 어떠한 문법적 장치로 인해 ‘의견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는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⑩, ⑪, ⑫의 경우, 문면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다른 기준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반응이지만, 수업을 실시한 교사가 별도로 확인을 해 준 덕에 ‘언어적 근거’로 둑을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은 인용 구문의 형식을 우선적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이 중 특히 주목할 것은 ⑪이다. 이 학생은 “그들이 말한 인용문들은 사실이다.”라며, 유일하게 ‘인용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어지는 판단인 “하지만 기자는 환경 단체와 대립되는 입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게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구절은, ‘내용상의 판단’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용문 형식을 메타적으로 인식’한 연후에 이루어진 것

이다. 마지막 반응인 “지율스님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조차 지율스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생의 표현에서 ‘지율스님이 말한 것’이란, ‘직접 인용 형식으로 표상된 부분’을 의미한다.

⑧ 학생의 경우는 명사문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학생은 주어 및 서술어, 서술어 자릿수를 모두 채운 문장이 ‘하나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낸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명사문은 ‘객관적 사태를 숨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⑨의 경우는 다른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비유적 표현’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의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장르적 특성

중학교 학생은 신문 기사는 모두 사실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에 의견이 존재할 리가 없다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⑩, ⑪, ⑫, ⑬은 신문 기사에 대한 장르 특성, 더 나아가 텍스트의 사회적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 생각된다. 기사문의 제보적 특성은 1차적인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다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⑭의 경우도 신문 기사에 대한 특성을 그릇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연 ‘기사문의 장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신문 기사라는 텍스트 유형을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는 ⑧, ⑨ 두 경우이다. ⑧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학습자 자신이 취한 비판적 읽기 전략을 기술한 것이다. ⑨은 비록 표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있으나⁸⁾ 인용된 말 자체도 기자의 관점에서 ‘구성되기’

8) 이 학생이 표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은, 국어 능력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즉 표제는 기사문을 작성한 주체와는 다른 주체가 작성하는 것이라는 신문 제작의 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련이라는 점을 기술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기사문조차도 기자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김봉순, 1999)는 텍스트 장르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기사문을 제재로 비판적 읽기 수업을 수행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⑬ 학생과 같은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실–의견’의 본질적 문제

중학생과는 달리, 많은 학생이 ‘사실–의견’은 구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만 천착할 경우, 자칫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을 ‘국어 수업 시간’에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⑭은 국어과 교사가 활동의 방향을 ‘국어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단계화하여야 하는 학습자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⑭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공감할만한 것”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실–의견을 구별하고 있다. 이는 해당 명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언어 외적인 기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회과 수업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차별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국어과 전문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⑭을 학습 내용으로 기획하는 것 보다는, ⑮과 같은 내용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⑮은 “어떤 것은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사실과 같이 말해 놔서”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처치는 ‘국어과 전문성’을 떨 수 있으며, 비판적 문식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의견임에도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든’ 언어적 장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고, 축자적 해석과 비판적 해석의 과정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⑯의 “의견이 너무 유창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 같다.”라는 구

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견인데 그 말이 너무 일리 있고 확실하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기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 ‘언어적 장치’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언론학, 법학에서 다루어 온 문제⁹⁾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성 입증 책임’과 늘 상충한다. 특종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싶어 하는 언론의 경우, 아직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추정된 진실성’에 근거하여 기사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대해 법학에서는 ‘사실성 입증 책임’을 묻곤 한다. 즉, ⓑ 학생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비판적 능력을 갖추는 데, 더 나아가 신문 기사를 교과 통합적으로 공부하고자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어과 전문성을 지닌 중핵적 내용 요소’로 재기술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할 때는 의문시되는 것이다.

ⓒ은 철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난’의 의미는 블뢰즈 / 이정우 역 (2003 : 27~29)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블뢰즈는 의미를 “명제 안에 존속하는 순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순수 사건이란 잠재적 사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이다. 다시 말해, ‘떨어뜨렸다, 떨어뜨릴 것이다, 떨어뜨릴 수 있다’ 등등이 아니라 ‘떨어뜨리다’라는 부정법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다. 이 순수 사건이 현실화되면, 그 사건은 명제로 표현된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란 그대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물리적 변화나 사람의 세포에서의 변화는 자연적 과정이며 그것 자체만을 추상해 생각했을 때에는 무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장’ 내에서 계열화되며, 계열화되는 순간 의미로 화한다. 그러므로 사건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 면에서

9) “(전략) 1996년 1월 26일 서울 지방법원 민사1부는, 김현철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한겨레측에 위자료 4억원 지불과 정정보도문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보도내용의 ‘추정된 진실성’보다는 ‘증거에 의한 사실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편집위원회, 1996). (후략)”

발생한다는 결론을 그는 내리고 있다.

들뢰즈의 통찰을 이 학생의 반응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면, ⑧ 학생에게는 현재, ‘현실’이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현실의 경계’로 인식하도록 한 후, ‘명제로 표현된 무의미의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텍스트에서 ‘계열화(표현)’된 것의 ‘의미’를 새로이 이해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⑧ 학생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도 ‘가상의 필자’를 상정하는 수사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수반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들뢰즈의 기준을 이해시키는 것은 철학의 문제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텍스트의 이해는 필자와의 대화 과정임을 인식시키는 것은 국어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 요소일 것이다.

4. 관점

⑨, ⑩, ⑪ 학습자가 표명한 것처럼, 학습자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사실—의견 구분’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었다. ⑫, ⑬, ⑭ 학생의 경우는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사실—의견 구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⑫과 ⑬ 학생의 경우, 지율 스님의 관점에서 낸 ‘의견’은, 기자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에 이 글은 기자 자신의 의견은 없는 글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비해 ⑭은 비록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그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기사문에 포함된 정보, 명제’는 ‘사실’이지만 결국은 모든 내용을 기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⑫ 학습자의 지적 아닌 지적이 일리가 있긴 하다. 활동의 발문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사실—의견 구별’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러한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누구의 관점’에서 활동을 하라는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것은, 기본적

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수사적 상황을 설정하면서 수행하는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즉 어떠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필자와의 가상의 대화’를 상정하고 텍스트를 이해해나가는 것이 기본이다.¹⁰⁾

텍스트 이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글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사실－의견’의 구별이 새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주어진 글을 대상으로 사실－의견 구별 활동을 해야 하는’ 학습자는, 당연히 ‘필자의 관점에서 사실－의견’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에는 텍스트에 대한 기본 태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IV. 마무리 : 국어과적 전문성을 지닌 성취 기준으로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 양상은, 적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실－의견 구별하기’의 교육 내용 기획에 적지 않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목적이었던, ‘국어과 전문성을 지닌 성취 기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써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언어적 근거를 확인하게 하는 기초적 활동으로 출발

수업을 실행한 중학교 교사에 의하면, 수업 이전에는 이 활동이 이미 5학년 읽기 영역에서도 다루었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쉬

10) 이는 바로 앞 3절에서 살펴보았던 ⑧학생에게서 발견되었던 문제와 동일하다.

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신문기사를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신문기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문기사 내용이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하는 데에까지는 무리가 있었다.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비판적 이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급에서 ‘문장 차원에서의 사실–의견’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했다면(권이은, 2010),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하게 될 본격적인 비판 활동을 대비하여 ‘관련된 언어적 장치에 대한 지식’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문법 지식을 이해–표현의 힘’으로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주세형, 2009b). 중학교 단계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와 관련된 문법 구문, 문법–어휘적 지식을 제공하고, 언어적 장치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주목력을 높임으로써, 필자가 어떤 의도에서 해당 언어 형식을 선택하게 되었을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동안 국어과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학습 목표로 삼은 단원의 활동들을 ‘언어적 접근’으로써 본격화하지 못했다. 학습자는 사실과 의견에 대해 ‘국어교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회교과, 윤리교과적’으로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어 교과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학습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이해–생산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한 셈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¹⁾ 중학교 단계에서 ‘사실–의견 구별’을 위한 언어적 장치를 다양하게 익히도록 한다면, ‘국어과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문식성을 신장하고 타 교과에서의 비판적 활동으로도 전이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적 장치’에 주목하는 활동이 국어과 수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

11) 1절과 2절을 서로 밀접하게 다루어 보아야만 텍스트 생산 능력까지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하는 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사들이 그러한 수업을 하지 못했던 것은, 문법교육에서 이에 대한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크다. 예를 들어 ‘인용 표현’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외에도, ‘사실-의견 구별을 위한 인용 표현’ 연구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¹²⁾

2. 범담화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 기준으로

‘사실-의견 구별’을 위한 언어적 장치를 다양하게 학습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담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나가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 양상을 근거로 할 때, 중학교 학습자는 ‘신문 기사 텍스트’에 대한 장르적 이해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 기사 텍스트의 ‘제보적 기능’만이 비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우는 신문 기사 텍스트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3, 4절에서 확인했듯이,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서도 ‘텍스트 이해의 기본적 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이 발견된다는 점이 심각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이는 ‘필자의 관점, 의도’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다. 특정 담화에 대한 비판적 활동만이 가능할 뿐, 다른 텍스트 유형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에도 그 능력이 전이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음을 뜻한다.

요컨대 중등학교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범담화적 성취기준으로서 재평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1절에서 언급했던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위한 문법적 장치를 모두 섭렵하도록 한다.

12)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세형(2009a)에서는 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문법 영역의 획적 구조를 탐색한 바 있다.

둘째, 텍스트 이해—표현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사적 상황을 전제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수행하는 목적은 비판적 문식성을 신장하는 데 있음을 알되, 국어과 수업에서는 ‘언어적 전문성’을 지향하는 활동을 해야 함을 메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넷째, 신문 기사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을 수행하고, 이는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 단계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실—의견’의 양상이 다양한 신문 기사들을 접하면서, 신문 기사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한다.

여섯째,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텍스트 장르별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안다.

일곱째, 다양한 텍스트 유형별로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을 수행하고, 장르별로 이 활동을 위한 ‘문법적 장치’도 조금씩 달라짐을 이해한다.

‘사실—의견 구별하기’는 그동안 국어과에서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범답화적 성취 기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국어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생산자는 각 텍스트의 장르별로 ‘사실—의견’의 양상이 다르게 작동함을 인식하고 이를 텍스트 생산 과정에 반영한다. 즉, 텍스트 생산자는 생산해 내고자 하는 텍스트가 신문 기사이냐, 소설이냐, 수필이냐에 따라 텍스트에 드러낼 ‘사실—의견’의 비중과 강도를 다르게 조정한다.

그럼에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유형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의견’을 구별하는 항목을 설정해 왔다. 즉 그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사실—의견’ 구별을 ‘장르별’로 세분화하여 다루지 않고 기능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습자가 특정 텍스트를 대상으로 기계적으로 ‘사실—의견’ 구별 활동을 하게 만든 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실—의견 구별 활동’의 결과 학습자가 얻은 모종의 ‘지식’을 실제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는’ 지식으로 남게 한다. 장르별로 접근하게 되면

텍스트의 목적, 기능, 장르성 역시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이는 텍스트 이해-생산 능력을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필자의 권위’ 문제를 텍스트 장르별로 달리 연구하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자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학습자 학습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텍스트의 경우, 필자의 권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가 비판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3. 범교과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성취 기준으로

박인기(2006, 2009)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식 사회의 해제모니 구도라고 설명했을 때 교과의 힘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편벽한 도구주의를 벗어나 ‘국어과에서 얻는 지식, 기능, 태도들이 타 교과의 지식, 기능들과 도구 이상의 왕성한 상호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갖도록 타 교과로부터 상호 교섭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본고에서 탐색한 ‘국어과 전문성’이 ‘언어 · 텍스트 중심’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타 교과와 ‘명확히 경계 짓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는 언어의 본질이 그러하듯이, ‘언어적 전문성’을 심도 있게 추구하면 할수록 ‘타 교과로부터도 상호 교섭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독자성을 지닐 수 있는(박인기, 2006)’ 전문성 역시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Ⅲ장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의견 구별하기’ 활동은 아무리 국어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업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국어교과 전문성을 넘어서는 내용 요소가 더 많이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실-의견 구별하기’는 타 교과로부터 상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핵적인 성취 기준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읽기, 쓰기 영역에서 ‘관점, 객관성, 주관성, 타당성, 신뢰성’ 등의 문제를 다양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다루면서, 타 교과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 가능성을 탐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3.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 권이은(2010), 사실 문장 요소의 체계화 및 지도 방안 연구—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대해(2005), 수행적 이론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pp.5~29.
- 김봉순(2007), 국어교육에는 어떤 문법이 필요한가?—‘시제’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7, pp.447~466.
- 김재형(1998),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서울대학교법학, 39-1.
- 김경남(2005), 신문 기사 인용문의 특성, 국어학 46, pp.277~294.
- 김종현(2000), 유사 인용문의 발화 효과와 화자의 태도, 언어학 26, pp.75~104.
- 김혜경(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가영(2009), 문법 지식의 응용화 방향, 형태론 11-2.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철 외(1990),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pp.23~54.
- 박인기(2006),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pp.1~30.
- 박인기(2009), 교과의 생태와 교과의 진화—교과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어 교과의 진화 조건, 국어교육학연구 34, pp.309~343.
- 소경희(2003),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연구 21-4, pp.77~96.
- 양미경(2008),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과학사.
- 이경희(2001/2005),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경.
- 주세형(2008), 학교 문법 다시 쓰기(2), 국어교육 126, pp.283~320.
- 주세형(2009a), 문법 교재 개발: 인용 표현의 횡적 구조 탐색을 위하여, 제11회 문법 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주세형(2009b), 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미, 국어교육 130, pp.173~204.
- 최미숙 · 김봉순 · 원진숙 · 이경희 · 전은주 · 정혜승 · 정현선 · 주세형(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편집위원회(1996), 언론의 자유와 사실성 입증 책임: 법적 사실, 추정된 진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Journalism Review 18.

- Chafe, W.(1994) / 김병원 · 성기철 역(2006), 담화와 의식과 시간, 한국문화사.
- Deluze(1969) / 이정우 역(2003), 의미의 논리, 한길사.
- Knapp & Watkins(2005) / 주세형 · 김은성 · 남가영 역(2007), 장르, 텍스트, 문법 : 쓰기
를 위한 문법, 박이정.

<초록>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의 국어과 전문성 탐색

주세형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는 비판적 문식성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및 프로그램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성취 기준이다. 그러나 활동을 위한 구체적 지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어과 교사가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수업을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사는 국어과 전문성을 지닌 수업을 해야 하며, ‘국어과 전문성’은 ‘언어·텍스트에 기반한 활동과 전략’이 핵심이 됨을 의미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사실-의견 구별하기’가 국어과적 전문성을 지닌 성취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내용 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조사하였다.

II장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를 주 활동 내용으로 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III장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학습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IV장에서는 ‘사실-의견 구별하기’가 국어과 전문성을 지니는 성취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탐색하였다.

【핵심어】 사실과 의견, 국어과 전문성, 성취 기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비판적 읽기, 인용, 관점, 신문 기사, 텍스트 유형, 장르, 문법

<Abstract>

Searching for the Language-Specific Contents in Korean Education :
‘The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Statements’

Joo, Se-hyung

‘The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statements’ has been an achievement standard throughout the whole history of National Curriculum in Korean Education. But the in-depth discussion about the specific contents could not be found. In this respec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Korean classroom.

In this thesis, the aspects of learners’ studying are researched. In doing so, what kind of contents element should be exploited for the redescribing the language-specific standard. First of all, the presupposition of this thesis is that Korean class should be grounded on the language and text.

In chapter II, the classes are planned for the distinguishing the fact and the statement. And in the next chapter, the aspects of learners’ studying are investigated. In chapter IV, the designing of the language-professional class are described in three aspect.

【Key words】 fact, statement, language-specific contents in Korean Education, achievement standard, 2007 New Korean National Curriculum, critical reading, report, viewpoint, newspaper article, text type, genre, grammar